

實驗大學 이후 무엇이 변했는가

金 鍾 喆

(서울大 教育學科)

I. 實驗大學의 導入

1973년을 기하여 10개교의 實驗大學이 발족한 것은 한국의 大學史에 있어서 획기적 사실이라 할 수 있다. 실험대학의 제도화와 그 운영은 1970년대 한국 大學改革事業의 基幹을 이루었고 그 功過에 대한 평가는 차치하고서라도 그것이 大學發展에 있어서 심대한 영향을 미쳤음은 의심할 여지가 없기 때문이다.

實驗大學이란 무엇이며 그것은 어떠한 취지에 어떻게 도입되었는가?

實驗大學이란 1970년대의 大學改革事業을 示範的으로 운영 시켰던 大學을 일컫는다 하겠다. 따라서 實驗이라는 말보다 참뜻은 示範이라는 用語가 어울릴지도 모른다. 사실 1970년대 實驗大學의 범주에 들어가기 위하여는 大學改革事業을 추진코자 하는 意志가 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先導的으로 추진할 수 있는 能力과 條件을 갖추었다고 판단되는 대학이어야 한다는 것이 先行條件이었다.

따라서 비교적 우수한 대학으로서 質的 敎育의 조건을 갖추지 않고서는 실험대학의 범주에 들기 힘들었던 것이 사실이다. 실험대학 운영의 後期에 들어서면서 실험대학과 비실험대학간의 구분이 애매해진 것은 사실이나, 처음 단계에 있어서는 실험대학은 보다 우수한 대학임을 自

他가 共認했음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實驗大學 제도의 도입은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취지에서 비롯되었다. 첫째 1960년대의 急進的·全面的이었던 大學改革에 대하여 反省의 소리가 높고 前轍을 다시 밟지 말아야 하겠다는 뜻이 강했다. 1960년대의 大學改革은 大學整備나 私學에 대한 전면적 통제 강화 등을 비롯하여 급진적이었으며 모든 대학을 일시에 전면적으로 다루었던 것이 사실이다. 그리고 그것은 상당한 試行錯誤를 수반하였음도 명백하다. 따라서 大學改革의 접근방법에 있어서는 보다 점진적·실험적·부분적이어야 한다는 주장이 강력히 대두되었다. 그것은 곧 大學改革에 있어서는 實驗大學에 의한 示範的 시행 과정을 거쳐 점진적으로 분산 확대코자 하는 接近方法의 도입을 의미하였다.

둘째로 實驗大學의 도입은 대학의 自發的 意見에 의한 大學改革에의 參與를 유도한다는 뜻을 내포하였다. '60년대의 대학 개혁에 있어서는 관련 대학의 의사를 무시한 채 文敎行政當局의 의도가 강행되었고 그 결과는 대학 개혁사업에 대한 大學人의 非協調를 초래한 셈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70년대의 대학 개혁에 있어서는 대학의 참여와 협조에 의한 개혁의 추진을 표방하게 되었다. 실험대학의 도입은 大學 자체가 실험대학의 대열에 참여할 것을 전제로 하여

필요하고 충분한 조건을 갖추어 이를 추진해 나간다는 자세로 임하였고 사실 그와 같은 절차를 밟았던 것이다. 물론 대학의 참여라 할지라도 大學經營當局의 참여와 全大學人의 참여는 구분되어야 하겠지만 大學經營當局의 참여라 할지라도 그 나름대로 뜻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끝으로 實驗大學의 도입은 大學改革事業을 연구 및 평가활동과 긴밀히 관련시키겠다는 뜻을 내포하였다. 文敎部는 全國的인 視野에서 대학 개혁사업의 추진과 성과를 평가하겠다는 것이고 각 大學은 각각 나름대로의 관점에서 自體評價를 추진하겠다는 것이었다. 그와 같은 평가는 대학의 自體研究를 통해서 또는 종합적인 評價研究에 의하여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생각되었다. 물론 당초의 의도가 얼마나 충실히 구현되었는가는 문제되겠지만 적어도 그와 같은 뜻을 가지고 발족하였던 것이다.

다음에 實驗大學의 도입 과정을 살펴보기로 한다.

1960년대에 추진되었던 大學改革은 상당한 우여곡절을 거쳤으며 大學整備의 실패 후 大學學生定員令과 學位登錄制의 실시, 大學入學豫備考査制의 실시 등으로 이어졌다. 1970년대에 들어서면서 地域特性化를 위한 全國세미나가 잇달아 개최되었고, 1972년에는 高等教育改革을 위한 國際심포지움이 개최되었으며 大學改革을 위한 새로운 氣運이 조성되었다. 1972년 文敎部長官의 자문기관으로서의 教育政策審議會가 발족되었고 그 일환으로서 高等教育分科會가 조직되면서 고등교육에 관한 일련의 정책연구가 추진되었다. 研究를 토대로 새로운 政策構想을 하고 그것을 일부 先導의 大學에서 시범적으로 시행한 이후 改革을 普遍化하려는 새로운 接近方法이 매두되었다. 이와 같은 움직임과 거의 배를 같이 하여 서울大學校 綜合化案의 구상이 제시되었으며 그것은 卒業學點의 감축, 系列別 學生選拔, 副專攻制 등 새로운 구상을 시도하였다.

우연의 일치일지는 모르나 實驗大學에서의 大學改革이 서울大學校의 새 構想과 호흡을 같이

한 사실은 주목을 요한다. 아문은 1973년부터 10개교의 實驗大學이 발족되었고 그들에 의하여 새로운 改革措置가 시범적으로 시행되기에 이르렀다. 이들은 改革計劃의 추진을 自願하였으며, 改革을 추진할 수 있는 能力과 條件을 구비하였음을 인정받아 특별히 선정된 大學들이었다.

實驗大學에서의 大學改革內容은 다음의 세 가지를 포함하였다.

- 1) 1952년 이래 제도화된 卒業學點 160학점을 實驗大學에 한하여 140학점으로 引下하고 教育課程의 개선, 教育方法의 세신을 도모한다.
- 2) 종래의 學科別 定員制를 지양하고 大學別·系列別 定員制를 택할 수 있도록 한다.
- 3) 學生들로 하여금 副專攻 또는 複數專攻을 할 수 있게 허용한다.

이들 3개 항의 改革事業 외에도 새로운 내용이 첨가되었다. 즉, 1974년도부터 能力에 따른 學點의 취득, 複數專攻制의 실시,¹⁾ 시설 활용의 극대화를 위한 季節學期制의 도입(多學期制), 學點에 따른 徵收를 포함하여 登錄金制度의 개선, 학기당 履修時間을 기준으로 하는 學點計算法의 도입, 法定敎養科目의 自律化(국사, 국민윤리, 교련, 체육 등 제외) 등을 포함하여 새로운 改革프로그램이 추가되었다. 동시에 실험대학의 수도 늘어났으며, 1975년에는 도합 20개교에 달하였다. 實驗大學을 통한 大學改革은 그 내용과 適用對象校를 점차 확대해 나감으로써 大學改革의 全國的 普遍化를 기하고자 하였던 것이 사실이다.

II. 實驗大學의 功過

實驗大學이 한국의 大學教育 發展에 있어서 어떠한 영향을 미쳤느냐, 그 功過가 무엇이었느냐에 대하여는 보는 사람의 觀點에 따라서 同一하지 않은 것 같다. 1980년대에 들어서면서 모든 4年制 大學이 140學點 기준으로 교육과정 운영 면에서 실험대학의 전철을 밟게 된 사실만 농

1) 1973년 실험대학의 발족 당시 副專攻 또는 複數專攻을 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였으나 複數專攻制의 실시는 1974년도부터 구체화된 셈이다. 複數專攻制는 在學期間을 2~3학기 연장할 것을 전제로 시행되었다.

고 보더라도 그것을 하나의 前進으로 보는 견해가 있는가 하면 正반대로 退步로 간주하는 견해가 있다는 사실이 이를 例示해 주고 있다. 필자는 共同研究를 통하여 한국의 實驗大學 운영을 평가하고 10가지 成果와 10가지 問題點을 제시한 바 있다.²⁾ 이 평가 보고서에서도 그 功過에 대하여는 정확한 결론을 내리지 않고 독자들로 하여금 그것을 스스로 판단하게 하였음을 상기하고자 한다. 功過의 판단은 저마다 어느 것이 大學發展에 있어서 보다 本質의이며 따라서 더 중요하느냐에 대한 견해의 차이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이 점에 관한 한 필자의 생각에 근본적인 변화는 없다. 여기에 그 要點을 간추려 제시해 보기로 한다.

먼저 그 成果를 생각해 본다. 첫째 自律的이며 漸進的인 大學改革의 氣運이 조성되었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다. 1960년대의 대학 개혁이 정부에 의한 급진적 接近을 그 특징으로 한 데 반하여 1970년대의 實驗大學에 의한 대학 개혁은 대학 자체의 참여를 전제로 하는 것이었고, 지극히 완만한 성격을 가진 것이었다. 실험대학의 운영이 그와 같은 대학 개혁의 기풍을 조성하는 계기를 마련하였음은 부인하기 어렵다. 10여 년이 지난 오늘날 그와 같은 自律的 改革의 氣風이 얼마나 존속되고 있는지는 의문의 여지가 있을지 모른다. 그러나 自律性은 지금도 理念面에서 받아들여지고 있는 基本原理이며 어떻게 하면 이 原理를 살릴 수 있는지는 한국 大學의 발전에 있어서 중요한 과제로 제기되고 있다. 그리고 실험대학이 그와 같은 理念을 부각시키는 계기를 마련하였음은 기억할 만한 사실이라 하겠다.

둘째로 實驗大學은 대학의 教育課程運營에 있어서 새로운 變化를 가져올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고 하겠다. 사실 대학에서의 教育課程 刷新은 大學社會의 門戶主義의 性向, 특히 教授社會의 自閉症現象에 의하여 크게 저해되었다고 하여도 과언은 아니다. 실험대학은 그와 같은

性向과 現象에 대하여 어떠한 變化를 일으키게 하는 계기를 마련한 셈이었다. 學點의 감독이 時間配當基準을 제검토하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각 敎科의 내용을 전면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제조정케 하는 구실을 준 셈이었다. 각 大學別로 教育課程 연구가 보다 活性化되었고 全國的으로 教育과정의 深化를 기할 수 있는 방안의 연구도 함께 수반되었다.

세째로 實驗大學은 大學 상호간에 閉鎖性을 타파하고 開放과 交流를 촉진시키며 善意의 경쟁을 유발하도록 하는 새 계기를 마련하였다. 실험대학이 되고자 하는 대학들은 大學改革事業을 先導的으로 示範하는 다른 대학의 실태를 본받고자 노력하는 가운데 정보를 얻고 좋은 점은 본받아서 시행하고자 하였다. 교육과정의 개편 뿐만 아니라 실험대학의 운영과 관련하여 여러 가지 측면에서 다른 대학을 따라 가려는 노력이 加添되었다. 물론 그와 같은 氣風이 實驗大學의 운영에 의해서만 조성된 것이라기보다도 '70년대 高等教育改革의 추진과정에서 중층적으로 빚어진 것이라 할 수 있겠으나 그것이 곧 실험대학의 발전과 깊이 관련된 것이었음을 주목하고자 한다.

끝으로 政策決定의 合理化가 촉진되었다고 할 수 있다. 실험대학의 선정, 실험대학에 의한 大學改革事業의 시행, 그 결과에 대한 評價 등 일련의 과정에 걸쳐 보다 客觀的인 자료를 토대로 合理的인 방법을 모색하려는 노력이 증대되었다. 일반적으로 실험대학의 운영계획과 관련하여 研究가 추진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 評價에 있어서도 科學的 문제 해결 방식을 적용한 研究活動이 필수적 조건으로 간주되기에 이르렀으며 그것은 合理化·效率化의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것이었다.

이상 몇 가지는 實驗大學의 운영과 더불어 발전된 새로운 추세로서 한국 大學發展에 있어서 적극적인 寄與를 한 要因으로 평가될 수 있는 점이다. 그것은 實驗大學의 功이요, 실험대학을

2) 金鍾喆外, 實驗大學運營 5 個年 綜合評價報告書, 文敎部教育政策審議會 高等教育分科委員會, 1978, pp. 62~70. 金鍾喆, 韓國高等教育研究(서울:培英社, 1979), pp. 468~481. 同報告書에서는 일부가 삭제 기재되었으나 上掲書에서는 原案대로 수정 제시되었으므로 上掲書의 내용이 보다 정확한 평가기록이라 할 수 있음.

통하여 얻어진 득이라 할 수 있다. 반면에 1970년대대의 한국 實驗大學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大學發展에 逆行되는 虛點을 露呈하였다. 이들 노정된 虛點이 실험대학의 결과로서 派生된 것인지 아니면 그 운영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나타난 것인지는 분명치 않다. 따라서 그들을 실험대학의 過오, 실험대학의 운영 결과로서 야기된 失이라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다. 그러나 그들이 실험대학의 운영 과정에서 또는 그 결과로서 부각된 사실에 유의하면서 몇 가지 주요한 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첫째, 실험대학의 운영 과정에서 봉착한 기본적인 문제점의 하나는 學生指導의 난점이 노정된 사실이었다. 종래의 科別選拔方式에서는 처음부터 學生들이 科單位로 고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학생들을 지도하는 데 있어서 비교적 손쉬운 점이 있었다. 이에 반하여 실험대학에서는 系列別 學生選拔의 원칙이 적용되었으며 그것은 학생들의 適性配置에 부합된다는 근거에 의하여 合理化되었다. 그러나 실제 운영 면에서는 학생들의 實利爲主 學科選好가 두드러졌고 專攻配置 이전에 있어서 學生指導가 심각한 난점으로 부각되었다. 사실 이로 인하여 系列別 學生選拔의 원칙이 무너지고 學科別 選拔制로 還元된 것이라 하여도 과언은 아니다. 이 점은 실험대학의 운영 과정에서 얻어진 뼈아픈 教訓의 하나였다.

둘째로 실험대학에서의 學點減縮이 교육과정 운영의 심화를 가져오는 데 기여하기보다도 經費節減을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되어버리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는 점이 지적되었다. 본시 실험대학에 있어서 學點減縮은 교육과정 운영의 세계적 추세에 맞춰서 卒業學點基準을 적정선에서 감축 조절하는 대신 그로 인하여 절감되는 경비와 정력을 교육과정 운영의 內質化에 轉用코자 하는데 목적이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일부 대학, 특히 상당수의 私立大學은 그와 같은 본뜻을 살리지 못하고 學點 감축을 경비를 줄이기 위한 수단으로만 생각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 점에 관하여는 약간 과장된 면이 있기는 하나 無根한 사실이 아니었던 것도 또한 사실이다. 實驗大學에 대한 支援條件이 미흡하여 그 實效를 거두지 못하고 실험대학을 財政難 완화의 突破口로 삼

게 됨으로써 大學發展의 正道에 어긋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다는 것이다.

셋째로 實驗大學이 大學教育에 있어서 實利爲主의 專攻選擇에 부체질함으로써 대학 발전에 기여하지 못했다는 점이 지적되었다. 이 역시 系列別 學生選拔의 어려움을 말하는 것으로서 個人的 選好와 社會의 必要 사이의 괴리를 반영하는 것이다. 系列別 學生選拔은 본시 학생들의 科選擇에 대한 불만을 완화코자 하는 것이었으나 그 결과는 도리어 實利爲主의 專攻選擇에 부체질을 하고 特定學科에의 集中과 치열한 경쟁만을 조장하는 결과가 되었다는 것이다.

끝으로 실험대학이 비록 大學의 自律에 의한 參與를 빙자한 것은 사실이나 실제에 있어서는 이 역시 硬直化된 운영을 던치 못하였다는 비난이 제기되었다. 예컨대 系列別 學生選拔을 원하지 않는 학과가 있다 하더라도 文教當局의 실험대학 운영 방침이 어떠한 例外를 인정하지 않았고 大學經營當局 역시 실험대학의 名分에 편승하여 各科의 실정이나 주장을 무시해 버리는 사례가 적지 않았으며 그 결과는 진정한 의미의 自律的 參與라 하기보다도 일부 見解에 의한 半強要가 되었다는 것이다. 사실 大學改革事業에 대한 뿌리 깊은 不信과 抵抗意識으로 말미암아 모든 大學인이 혼연히 참여하는 大學改革의 추진이란 기대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었는지도 모른다. 아뭏든 實驗大學 역시 이와 같은 不信의 壁에 부딪친 것은 사실이었다 하겠다. 무슨 代案이 있었겠는가 하는 문제가 제기될 수는 있겠으나 이 점은 한국 대학의 固疾의 病弊의 하나였을지도 모른다.

實驗大學의 功過는 이상에서 논급한 바와 같은 몇 가지 사실에 대하여 그 어느 것을 받아들일지냐에 따라서 左右될 것이다. 그 肯定的 측면을 부각시키느냐, 아니면 否定的 면을 강조하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것이다. 실험대학이 大學發展에 있어서 하나의 중요한 디딤돌이 되었다는 견해와 그 역시 하나의 試行錯誤에 불과하였다는 의견이 교차되고 있는 것은 그러한 견해의 차이가 좁혀지지 않았다는 사실을 반영하는 것이라 하겠다. 실험대학의 功過에 대한 評價의 어려움이 여기에 있는 것 같다.

Ⅲ. 實驗大學을 넘어서서

1980년대에 들어서서 새로운 政治的·社會的 환경하에서 한국의 大學教育은 入試制度의 개혁, 卒業定員制의 시행 등 일련의 改革에 直面하게 되었다. 그 渦中에서 실험대학은 過去의 歷史 속 에 머물러고 말았다. 1981년 모든 4年制 大學의 卒業學點이 140학점 기준으로 조정되었고, 그와 軌를 같이하여 副專攻制, 能力別卒業制, 季節制 學期 등 실험대학에 의하여 도입되었던 대학 개혁사업의 일부도 자연스럽게 흡수되어 받아들여 짐으로써 실험대학은 소멸되면서 그 정신이 살아 남게 된 셈이었다. 말하자면 실험대학 운동은 1980년대 이후 한국 대학 발전의 흐름 속에 發展의 흐름으로 흡수·해소된 셈이다. 위에서 논급한 바와 같이 卒業學點의 단축을 비롯하여 여러 가지 새로운 制度가 실험대학의 소멸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한국 대학의 흐름 속에 살아남은 것은 1970년대 한국 實驗大學의 운동이 그만큼 성공한 것이라 하여도 과언은 아닐 것 같다. 실험 대학이란 본시 示範的·實驗的 改革事業이 大學 制度의 흐름 속에 자연스럽게 흡수됨으로써 실험대학과 非實驗大學의 구분이 필요 없게 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고 말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그와 같은 改革이 大學發展의 歷史的 흐름에서 얼마나 값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냐의 문제가 중요한 것임은 두말할 나위도 없는 것이다.

실험대학의 추진을 계기로 하여 學點의 감축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어떻게 評價하느냐는 실험대학의 成敗에 대한 觀點의 차이를 반영한다. 그것이 大學發展의 歷史的 흐름에 부합되는 것이며 그와 같은 발전의 흐름 속에서 교육과정 운영의 심화와 신축성 증대 등 得이 컸다고 본다면 실험대학은 분명히 成功的이었다고 판단될 것이다. 그러나 그와 같은 변화가 大學의 경비 절감, 學生의 勉學量의 감축 등으로 연결되었으며 한국 대학의 本質的 발전에 별로 기여한 것이 없다고 보는 한에 있어서는 실험대학의 운영

은 또 하나의 失敗作이요, 試行錯誤였다고 보여 질 것이다.

실험대학이 운영된 '70년대에 그 러하였거니와 '80년대 중반에 들어선 지금에 와서도 실험 대학에 대한 한국 大學人들의 視角에는 분명히 엄청난 괴리가 있는 것 같이 보인다. 그와 같은 괴리는 비단 실험대학의 문제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닐지도 모른다. 어찌면 이 땅의 大學人들이 가지는 現實에 대한 冷笑主義的 視角의 片鱗을 보는 것 같아서 씁쓸함을 느끼게 한다. 다만 필자의 偏見일지는 모르나 좀더 大局的 시야에서 본다면 실험대학은 여러 가지 노정된 문제점이나 부분적 실책에도 불구하고 한국 大學發展에 대하여 무엇인가 긍정적인 기여를 하였다고 보고 싶은 心情임을 밝혀 두고자 한다.

극히 한정된 學生들이 그 혜택을 입고 있기는 하나 副專攻·復數專攻制, 能力別 卒業制, 季節 學期制, 學點登錄制, 기타 몇 가지 실험대학을 통하여 도입되었던 제도들도 이제는 한국 大學 制度의 한 부분으로 定着된 셈이다. 그 受惠者는 한정되어 있다 할지라도 그러한 제도가 존재한다는 것은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그것은 大學教育 운영에 있어서 신축성의 증대를 의미하며 個人의 필요와 욕구를 보다 폭 넓게 받아들일 수 있는 制度的 裝置가 마련되어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系列別 學生選拔은 대부분 學科別 學生選拔方式으로 還元되었다. 당초에 系列別 學生選拔方式을 硬直的으로 받아들인 것이 실험대학의 기본 취지에 어긋나는 것이었음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뿐만 아니라 '80년대의 학생선발 방식은 大學入試制度의 개혁과 卒業定員制의 적용 등 새로운 改革案의 추진으로 인하여 근본적인 영향을 받았고 우리의 關心도 새로운 改革案에 집중되었던 것이 사실이다. 이제 실험대학은 사라졌고 大學發展의 歷史 속에서 그 成敗와 功過에 대한 논의만이 무성할 뿐이니 감개가 새삼스럽다 아니할 수 없다. *